

(주)메리츠금융지주



평가 등급

| 구분 | 종류 | 현재등급 | 직전등급 | 비고 |
|--------|------|------|-----------|-----|
| 신종자본증권 | 제10회 | 본 | A+/Stable | 채권형 |

| 등급확정일 | 주요 재무지표 | | | | | | 단위: 억원, % |
|---|--------------|------------|---------|---------|-----------|-----------|-----------|
| | 구분 | K-IFRS(연결) | | | | | |
| 2026.01.15.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09 |
| 평가담당자 | 당기순이익 | 9,253 | 13,832 | 16,404 | 21,254 | 23,334 | 20,268 |
| 안수진 책임연구원 02-2014-6341 sjahn@nicerating.com 곽노경 금융평가1실장 02-2014-6235 nkkwak@nicerating.com | 대손준비금조정이익 | 4,903 | 7,396 | 10,521 | 9,256 | 12,366 | 7,496 |
| 유호등급 | 자산총계 | 695,644 | 820,309 | 927,572 | 1,022,358 | 1,155,782 | 1,326,895 |
| 무보증사채 신종자본증권 단기신용등급 | 자본총계 | 68,773 | 68,833 | 59,559 | 100,972 | 109,300 | 114,041 |
| | ROA(%) | 1.4 | 1.8 | 1.9 | 2.2 | 2.1 | 2.2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2.9 | 1.9 | 1.2 | 1.9 | 3.2 | 7.8 |
| | 핵심사업자산의존도(%) | 84.6 | 82.2 | 83.3 | 83.8 | 84.4 | 83.2 |
| | 부채비율*(%) | 26.9 | 45.4 | 66.1 | 36.4 | 42.7 | 52.8 |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21.0 | 112.5 | 110.7 | 122.4 | 117.7 | 11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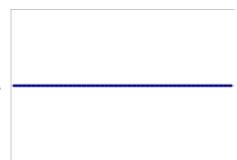
*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 2023년부터 자회사인 메리츠화재 IFRS 17, IFRS 9 및 K-ICS 제도 도입

평가 근거

- 핵심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양호한 사업경쟁력 및 안정적인 수익성
- 그룹 전반의 부동산익스포저 부담과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
- 자회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
- 주요 계열사의 매우 우수한 신인도, 계열의 다각화된 사업구조, 주요 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 등 고려 시 구조적 후순위성 완화
- 양호한 유동성 수준
-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른 후순위성 및 투자자 손실 가능성 반영
- 등급전망 - Stable

평가등급 추이

(무보증사채)



23/01 24/01 25/01 26/01

회사 개요

-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
- 2011년 메리츠금융지주 출범
- 2016년 상반기 중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캐피탈을 메리츠증권의 자회사로 변경
- 2023년 상반기 중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변경
- 2025년 9월말 기준 조정호 회장(지분율 55.8%)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지분 56.1% 보유

등급논거

핵심 자회사의 양호한 사업경쟁력 및 우수한 수익성

-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 중심의 보험포트폴리오와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통해 손해보험 업계 내 상위권의 수익성 유지
- 메리츠증권은 부동산금융 중심의 우수한 IB부문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음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 핵심 자회사의 양호한 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배당수익이 늘어나고 수익구조가 안정화됨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한 계열의 매우 우수한 신인도, 계열의 다각화된 사업구조, 주요 계열사의 100% 지분 보유와 높은 경영통제수준을 토대로 회사와 계열이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주회사로서의 구조적 후순위성은 완화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부동산익스포저는 부담 요인이며, 자회사 지원 부담도 존재

- 그룹은 부동산 관련 여신집중도가 높으며, 2022년 이후 부동산PF 저하 국면 진입으로 자산건전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여신 비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 '22년말 0.0%, 1.2% → '25년 9월말 21.4%, 7.8%)
- 국내외 동일차주에 대한 그룹의 고액 익스포저가 존재하여 특정 차주 부실화에 따른 동반 부실 위험도 존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외에도 지급보증('25년 9월말 기준 캐피탈 6,200억원, 한도 1.2조 원) 및 신종자본증권 인수(증권 5,100억원, 화재 1,000억원) 등 실질적인 자본적정성은 지표 대비 낮은 수준
- 또한 2025년 12월 메리츠증권의 CPS 발행(5,000억원)에 대한 풋옵션 제공으로, 투자자의 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 재무부담 내재

중점 검토사항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

- 2025년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그룹이 보유한 1.2조원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고정으로 분류되어 자산건전성 지표가 저하
- 동 기업대출에 대해 홈플러스의 주요 점포를 담보로 한 신탁의 1종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안할 때 궁극적인 회수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담보권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여건 등 일부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해당 대출건의 회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표 |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익스포저

| 구 분 | 최초 대출 | 대출잔액 | '25년 9월말 고정이하자산 | 실행일 | 만기일 | 단위: 억원, % 회사 제시 LTV |
|--------|-------|-------|--------------------|------------|------------|---------------------------|
| 메리츠증권 | 7,000 | 6,274 | 12,327 | | | |
| 메리츠화재 | 3,000 | 2,689 | 9,708 | 2024.05.22 | 2027.05.22 | |
| 메리츠캐피탈 | 3,000 | 2,689 | 7,393 | | | 26% |

자료: 회사 제시자료 및 공시자료, 2025년 9월말

등급변동 검토요인

- 핵심 자회사의 양호한 시장지위와 수익창출능력을 고려시 출자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이중레버리지비율은 당분간 14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
- 출자 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후순위성 증권 인수 규모는 확대된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자산건전성도 추가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배당정책 변화와 계열 내 유보되는 이익 규모 추이를 살펴볼 예정

표 | 등급변동 검토 요인

| 구분 | 등급변동 검토 요인 |
|-------------|--|
| 상향조정 검 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자회사가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영업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의 시장지위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
| 하향조정 검 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지원과 내부유보 이익규모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재무부담이 증가하거나,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40%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될 경우 |

주: 실제 등급 및 등급전망 조정은 상기의 등급변동 검토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경량정성 요인들을 기초로 수행됨.

표 | 주요 등급조정 검토요인 지표 추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09 |
|---------------|-------|-------|--------|--------|---------|
| 메리츠화재 규제자본비율 | 203.8 | 165.7 | 242.2 | 248.4 | 243.7 |
| 메리츠증권 조정순자본비율 | 184.1 | 194.9 | 174.8 | 149.5 | 150.0 |
| 부채비율 | 45.4 | 66.1 | 36.4 | 42.7 | 52.8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12.5 | 110.7 | 122.4 | 117.7 | 117.3 |
| 메리츠캐피탈 지급보증한도 | 7,500 | 8,000 | 10,000 | 10,000 | 12,000 |
| 지급보증 실행액/자기자본 | 46.8 | 49.5 | 14.4 | 16.9 | 16.6 |

자료: 회사 공시자료, 업무보고서

주: 메리츠화재의 경우 2023년부터 IFRS 17 및 K-ICS 제도 도입

사업위험**보험업과 증권업을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안정화**

메리츠금융그룹은 보험업(메리츠화재)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증권업(메리츠증권) 사업 확대 및 여전업(메리츠캐피탈) 진출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었다. 금융그룹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중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양사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부문별 외형 및 이익 규모가 증가하면서도 보험업과 증권업간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금융그룹 전반적인 사업기반이 안정화되었다. 2012년 설립된 메리츠캐피탈의 경우 높은 외형 성장세에 힘입어 그룹 내 자산 비중이 한때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했으나, 업권 내 경쟁심화 및 경기하강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그룹 내 비중은 축소되었다. 주요 자회사들이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각 업권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계열 전반의 사업경쟁력은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 메리츠금융그룹 지분도(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회사 공시자료

표 | 연결기준 사업비중 추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09 |
|--------------|------|-------|------|------|---------|
| 자산 비중 | | | | | |
| 보험 | 33.2 | 38.1 | 36.6 | 35.9 | 32.2 |
| 금융투자 | 56.0 | 51.4 | 52.9 | 55.1 | 59.4 |
| 여신전문금융 | 8.0 | 8.2 | 6.9 | 6.1 | 6.1 |
| 기타 | 2.8 | 2.2 | 3.6 | 3.0 | 2.3 |
| 이익 비중 | | | | | |
| 보험 | 43.6 | 56.0 | 77.1 | 75.7 | 74.7 |
| 금융투자 | 50.1 | 75.3 | 12.1 | 22.4 | 25.2 |
| 여신전문금융 | 4.3 | -23.6 | 11.3 | 6.1 | 4.2 |
| 기타 | 2.0 | -7.7 | -0.5 | -4.2 | -4.2 |

자료: 회사 업무보고서

주: 메리츠화재의 경우 2023년부터 IFRS 17 및 K-ICS 제도 도입

우수한 수익성 유지

회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수익성에 연동되고 있다. 그룹의 핵심 기업인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수익성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을 통해 손해보험 업계 내에서 상위권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사업비 감소와 장기보험 부문의 손해율 하락에 힘입어 순이익이 개선되었고, 2023년에는 회계기준 전환으로 이익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24년 이후에는 금리인하 기조와 경쟁심화에 따라 보험이익 규모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이나, 높은 운용자산이익률 시현을 통해 ROA가 4%대를 나타내는 등 우수한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PF 지급보증, 기업대출 등 IB부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시현해왔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ROA는 1.4%로 신용등급 AA- 증권사 평균인 1.1%를 상회하고 있으며, 순이익 규모 측면에서도 연 5,000~6,000억원의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부동산경기 악화 등 부정적인 영업환경 하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저하되었으나, 2024년 이후 위험인수 재개에 따른 IB 및 금융부문 손익 확대에 힘입어 이익창출력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회사의 2023년 연결기준 순이익은 메리츠화재의 회계기준 전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22년 1.6조원→23년 2.1조원)하였으나, IFRS17 반영 비교 손익 기준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결기준 순이익이 2.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3분기 누적기준 ROA가 2.2%에 달하는 등 우수한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25년 1분기 중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그룹 내 1.2조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요구 충당금 적립부담의 대부분이 대손준비금 적립을 통해 진행되면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성은 각 업권 내 다른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경쟁심화와 규제환경 강화, 고금리 환경 지속 및 부동산경기 저하로 인한 주요 자회사의 영업환경 저하 가능성성이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 등 투자자산 부실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 연결기준 수익성 추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4.1~9 | 2025.1~9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1.8 | 1.9 | 2.2 | 2.1 | 2.5 | 2.2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20.1 | 25.6 | 26.5 | 22.2 | 25.4 | 24.2 |

자료: 회사 공시자료

주: 메리츠화재의 경우 2023년부터 IFRS 17 및 K-ICS 제도 도입

재무위험

그룹 전반의 높은 부동산익스포저는 부담 요인이며, 자산건전성도 저하 추세

그룹 전반적으로 여신성자산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관련 여신 집중도가 높은 점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다. 2020년 이후 메리츠화재의 부동산 PF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금의 큰 증가폭이 그룹 전체 여신성자산 규모의 확대를 이끈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도 부동산 익스포저가 재차 늘어났다.

메리츠화재의 여신성 익스포저 관련 실질 부담은 높은 선순위 비중, 담보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지표 대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인 규모가 큰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 등 고위험 여신 비중이 크며, 메리츠캐피탈 역시 사업구조 특성상 경기 민감 여신과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이후 국내외 부동산투자건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1분기까지 메리츠캐피탈의 고정이하자산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2분기 중 해당 건전성저하자산 매각건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매입확약 제공, 강화된 PF사업성평가기준 적용으로 인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의 고정이하자산도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4년말 회사의 연결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각각 3.2%, 13.0%로 증가하고, 충당금커버리지비율이 82.6%로 하락하였다.

2025년 들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그룹이 보유한 1.2조원의 홈플러스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저하가 발생하면서 고정이하여신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9월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여신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말 대비 각각 8.4%p, 4.6%p 상승한 21.4%, 7.8%를, 충당금커버리지비율은 29.4%p 하락한 53.2%를 기록하였다.

동 기업대출에 대해 홈플러스의 61개 점포를 담보로 한 신탁의 1종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담보처분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할 때 궁극적인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담보권 행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여건 등 일부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해당 대출건의 회수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예정이다.

표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추이

| 구분 | 2021.12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09 |
|-------------------|---------|---------|---------|---------|---------|
| 고정이하여신비율(연결) | 1.9 | 1.2 | 1.9 | 3.2 | 7.8 |
| 순요주의이하여신/자기자본(연결) | 7.3 | 0.0 | 9.0 | 13.0 | 21.4 |
| 충당금 등/고정이하여신(연결) | 92.5 | 214.6 | 111.5 | 82.6 | 53.2 |

자료: 회사 공시자료

주: 순요주의이하여신=요주의이하여신-충당금 등

한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룹 계열사 전체적으로 부동산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부실자산 회수 속도 및 자산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부동산금융 거액여신이나 부동산펀드의 경우 동일차주 및 동일펀드에 대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의 공동 익스포저가 존재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투자집행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특정 차주 부실화에 따른 동반 부실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재무부담은 지표 대비 높은 수준

회사의 2025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7.3%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 이하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이후 2025년 9월까지 총 1조 2,760억원(2025년 9월말 잔액 1조 1,0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루어진 가운데,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배당금 유입액이 증가하면서 자회사 지원에 대응하여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메리츠캐피탈에 제공하고 있는 권면보증(2025년 9월말 기준 6,200억원, 한도 1.2조 원)과 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보유액(2025년 9월말 기준 메리츠화재 1,000억원, 메리츠증권 5,100억원)을 고려한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부담은 이중레버리지비율 지표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편, 회사는 2025년 12월 메리츠증권의 CPS 발행(5,000억원)에 대한 풋옵션을 제공하였다. 현재 회사의 보증한도는 1.2조원이나, 메리츠캐피탈에 제공하고 있는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메리츠증권에 제공한 풋옵션 계약을 합해 총 보증한도를 1.3조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급보증 대상이 메리츠캐피탈에서 일부 메리츠증권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른 당장의 재무상황 변동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계약 상 회사가 CPS의 최종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임에 따라, 보통주 전환 등을 통해 풋옵션이 전액 해소되기 전까지 회사의 잠재적 재무부담이 존재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지속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요 자회사 실적에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 내재하고 있어, 회사의 자회사 지원부담 및 자본적정성 지표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 |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 2021.12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09 |
|--------------|---------|---------|---------|---------|---------|
| 부채비율(별도) | 45.4 | 66.1 | 36.4 | 42.7 | 52.8 |
| 이중레버리지비율(별도) | 112.5 | 110.7 | 122.4 | 117.7 | 117.3 |

자료: 회사 공시자료

한편, 2023년 회사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3년부터 메리츠 화재에 대해 IFRS 17이 적용되면서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금리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자산과 부채 모두에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

회사는 만기 도래 사채를 보유 유동성 자산 및 차환 발행을 통해 대응하고, 자회사 배당금을 바탕으로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당해왔다. 2022년에는 배당금 유입액이 감소한 가운데 금융상품 취득 등으로 경상경비가 확대되었으나,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라 2023년 이후 배당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경비충당률이 개선된 모습이다. 이자비용,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급 지급 등 제반 현금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당금 유입액 증가, 그룹 내 회사의 중요한 지위, 사채 발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표 | 유동성 추이

단위: %

| 구분 | 2021.12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09 |
|-------------|----------|----------|---------|---------|---------|
| 원화유동성비율(별도) | 15,137.2 | 14,665.0 | 214.1 | 801.4 | 179.5 |

자료: 회사 공시자료

표 | 자회사별 배당수익 유입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1~9 |
|-------|-------|------|-------|--------|----------|
| 메리츠화재 | 866 | 446 | 53 | 7,888 | 8,592 |
| 메리츠증권 | 1,090 | 441 | 3,370 | 5,097 | 2,426 |
| 합계 | 1,956 | 887 | 3,423 | 12,985 | 11,019 |

자료: 회사 감사보고서

계열관계

메리츠금융계열은 보험, 증권 등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핵심 자회사인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의 보통주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배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신인도가 매우 우수한 주요 계열사와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로서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상당폭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 특성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른 후순위성과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반영하여 기본신용도 대비 2notch 하향 조정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파산 시 변제 순위의 상대적 열위성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반영하여 선순위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대비 2 Notch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방법론 적용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채무특성 반영 평가방법론(2025), 하이브리드증권 평가방법론(2023), 지주회사 평가방법론(2025),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2(2022), 신용평가 일반론이다. 당사의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www.nicerating.com >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및 기타 제공받은 자료 등입니다.

■ 회사채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기준년도: 1998 ~ 2024년, 단위: %

| 회사채 신용등급 | 정의 | 연간부도율 | | 평균누적부도율 | |
|-------------|--|-------|-------|---------|-------|
| | | 협의 | 광의 | 협의 | 광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0.00 | 0.00 | 0.00 | 0.00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0.00 | 0.00 | 0.00 | 0.00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0.00 | 0.00 | 0.39 | 1.53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0.00 | 0.00 | 1.57 | 4.86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0.00 | 0.00 | 6.17 | 9.24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10.00 | 10.00 | 14.58 | 17.64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0.00 | 0.00 | 11.25 | 19.92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0.00 | - | 12.87 | 32.65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 | 41.59 | 36.84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 - | -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24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4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기업신용등급(ICR)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 기업신용등급 | 정의 |
|--------|--|
| A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단기등급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 단기신용등급 | 정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1: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 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 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있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역외기업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의 경우, 역외기업이 속한 국가의 위험이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외환,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무역제도, 금융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규제 및 그 변화가 있습니다.

본 신용평가의 평가시일은 2026.01.09이고, 계약체결일은 2026.01.09이며, 평가완료일은 2026.01.15입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13건, 345.9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비신용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0건, 0.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비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